

HARDWARE  
FLASH

SOURCE   AMPLIFIER   **SPEAKER**   DISPLAY   ACCESSORY   DISPLAY

# DYNAUDIO

## SAPPHIRE Floorstanding speakers



CONTACT  
NO.

Tel

수입원  
(주)태인기기  
02-971-8241

## 30주년을 기념하는 스피커의 예술품

# AESTHETICISM

글 | 허 승 준

덴마크 다인오디오에서 스페셜 25주년에 이어 30주년 기념작을 출시했다. 전 세계 1000대 한정 판매라고 하니 다인오디오에 목마른 마니아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최상급 기종에 비해 덜 파격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지만 사파이어라는 보석 이름에 걸맞게 마치 섬세한 보석 세공에 견줄 만한 디자인으로 많은 이목을 끈다.

**최근 다인오디오**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오디오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폭스바겐의 고급 SUV 차량으로 잘 알려진 투아렉 모델에 사용되었고 이미 컴퓨터 유저들에게는 컴퓨터용 멀티미디어 스피커 MC 15 등과 그 외 유닛이 유명하여 카오디오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 층을 겨냥한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마도 모든 컴포넌트를 100% 자체 제작하는 다인오디오 사의 자신감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번 30주년 기념작인 사파이어도 이러한 다인오디오 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발판삼아 특별히 제작되었다고 본다.

사파이어는 최상급 에비던스 시리즈보다는 바로 아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제품인 컨피던스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파이어의 인클로저는 매우 특별해 보이며 기존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처럼 보인다. 보석처럼 날카롭게 절삭된 듯한 전면 배플과 기하학적인 형태로 짜인 측면의 모습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시각적 재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마감 자체도 나무의 질감을 매혹적으로 표현해주는 하이글로시 우드 마감으로 총 4가지의 재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시청에 임한 제품은 진한 커피 향을 연상케 하는 모카 마감인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장인이 만든 고급 가구처럼

럼 보이며 또한 매우 견고해 보인다. 견고한 구조는 각종 유닛들의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는 데도 한몫을 한다. 특히 유닛 간의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중역대 드라이버는 음향적으로 독립된 특별한 형태의 저공진 캐비닛 챔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진에 대한 대책은 다인의 상징과도 같은 에스타 트위터를 단단히 잡아주기 위해 중역대 드라이버처럼 인클로저와는 별도로 내부 챔버에 고정되어 있다. 전면에 45도 각도로 절삭된 배플 면은 중고역 음의 개방감과 음의 시간차 위상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닛 구성은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하는 20센티 우퍼와 1개의 미드, 그리고 트위터가 장착되었다. 강력한 네오디뮴 더블 마그넷 시스템으로 구성된 8인치 우퍼 부분에는 특수된 MSP(magnesium silicate polymer) 다이어프램, 경량의 캡톤 코어에 퓨어 알루미늄 코일이 감겨진 3인치 보이스 코일로 구성된 유닛 2개가 장착되었다. 미드레인지 또한 MSP콘 재질로 구성되어 최적화된 사운드의 확산성을 고려해 맑고 깨끗한 중역대의 음을 들려준다.

시청은 그리폰 미카도 CD 플레이어와 호블랜드의 라디아 파워 앰프 그리고 동사의 프리앰프인 HP-200으로 연결해 보았다.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고 잉글리시 콘서트와 성가대가 들려준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들어보았다. 첫 도입부터 시작되는 웅장한 음은 상당히 맑고 투명한 사운드로 들려왔다. 저음역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적당한 선에 머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렇다고 저역이 풀리지거나 불쾌한 느낌의 저역은 아니지만 뭔가 아쉬움을 남긴다. 이어 바바라 보니의 보컬에서도 뒷 배경으로 흐르는 연주와 보이스의 조화는 깔끔한 인상을 받았으나 소리가 조금은 가늘고 건조한 느낌이었다. 사파이어와 연결된 다른 기기의 매칭 문제인 거 같아 좀더 시간을 두고 들어보기로 하였다.

30분이 지나자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가늘고 건

조한 느낌은 조금 살집이 붙으면서 해상력의 극치로 치달는다. 이어 평평 터지는 듯한 대편성 곡에서도 깊지는 않지만 단단한 저역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고역에서 섬세하게 흘러나오는 미세한 음은 압도적이다. 그리고 음의 분리도도 탁월하여 다양한 악기의 정보를 귀로 읽을 수 있었다. 재즈 장르는 데이비드 홀랜드의 빅 밴드 앨범을 들어 보았는데 테너 색스폰의 잡음과도 같은 거친 음이 너무나 정제되어 맑고 깨끗한 소리로 들려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혼 악기와 드럼 베이스의 조화에서도 음의 옛지가 너무 서 있고 음 자체를 단단하게 조여 전체적으로 건조한 느낌을 받았다. 재즈 장르는 클래식에 비해 정숙하고 위엄 있는 연주하고는 다르게 다소 거칠고 술 냄새가 폴폴 나는 듯한 이미지가 그려져야 하는데 너무나 소리가 맑고 투명하다. 하지만 개별 악기의 특성에 신경 안 쓰고 듣고 있으면 재즈 특유의 스윙감 넘치는 사운드로 갑자기 돌변한 음들이 들려온다. 정말 보석은 보는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듯이 다인 오디오의 사파이어도 듣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하는 재미난 상상도 해본다.

락 장르에서도 라디오 헤드의 OK 컴퓨터 앨범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디테일과 해상력을 갖춘 고역대와 보컬의 목소리를 맡은 중역대, 그 외 무거운 음을 담당한 저역대와의 긴밀한 조화에서는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

묘한 매력이란 다인 특유의 음 설계 방식에 있다고 본다. 언제나 맑고 고운 고역과 부드러운 중역대와 섬세한 느낌의 저역과의 조화가 신기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유닛 간의 상호 간섭을 피하고 공진 대책을 완벽하게 대비한 특별한 설계로 이루어진 인클로저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진지하게 제품 개발에만 온 열정을 쏟아온 제작사의 노련한 기술력이 아닌가 싶다.

이번 시청을 통해 느낀 점은 사파이어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소리의 즐거움을 동반하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미래의 40주년 스페셜 제품도 한껏 기대해본다.



TECH SPECS

**DYNAUDIO**  
**SAPPHIRE**  
**₩17,700,000**

**TYPE**  
4way Bass Reflex  
**IMPEDANCE**  
4ohm  
**FREQUENCY RANGE**  
30Hz - 25kHz  
**SENSITIVITY**  
88dB@1m/2.83v  
**FINISH**  
Ivory, Amber, Bordeaux, Mocca  
**DIMENSIONS (WHD)**  
330x1350x325mm  
**WEIGHT**  
40kg